

'넌센스 크래커' 광주 무대



유쾌한 수녀들의 요절복동 코미디 뮤지컬 '넌센스 크래커'가 광주팬들을 찾는다. 이번 광주 무대는 조감경·심현섭 등 인기스타와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6월30일·7월1일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수녀들의 요절복동 코미디가 온다.'

'넌센스 짬보리'·'넌센스 아멘' 등에 이어 '넌센스'의 네번째 시리즈 '넌센스 크래커'가 광주팬들을 찾아온다. 6월30일 오후 4시·7시 30분, 7월1일 오후 7시·8시 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1985년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단 고긴의 뮤지컬 '넌센스'가 한국에 상륙한 것은 지난 1991년이었다. 지금처럼 뮤지컬이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던 때가 아니었음에도 엄숙하게 느껴지는 수녀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코믹 뮤지컬 '넌센스'

레오 수녀의 멋진 무용으로 시작하지만 레오 수녀는 부상을 입게 된다. 우여곡절에 홀로그램 판매까지 나서게 된 수녀들은 활당한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래부르며 춤까지 추는데…….

배우들은 모두 1인 다역을 소화하며 뮤지컬 속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대왕'을 만들어 나간다.

이번 작품의 캐스팅은 인기 스타들과 전문 뮤지컬 배우들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로버트 앤 수녀로 출연하는 조감경. 오래전부터 뮤지컬 출연을 권유받았던 조감

코믹 뮤지컬 '넌센스' 네번째 시리즈

조감경·심현섭 등 인기스타 함께 출연

'스'는 당시 많은 인기를 누렸었다.

'넌센스' 시리즈는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버전이 계속해서 발표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해까지 7천 868회 공연에 285만명 관객동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넌센스 크래커' 역시 수녀원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엔젤 수녀원의 수녀들은 어느 날 가톨릭 케이블 TV로부터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대왕'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원장수녀와 로버트 앤 수녀 등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남자가 필요해 버질 신부를 초대한다.

버질 신부의 해설로 시작된 뮤지컬은 엔젤 수녀원 최고의 발레리나

경은 음초 진행된 서울 공연부터 합류, 뛰어난 노래 실력과 연기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개그의 입장판으로 꽉히는 심현섭과 '난다 김'으로 알려진 개그우먼 김숙도 버질 신부와 허버트 수녀 역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그밖에 나정윤·홍지민·김두경 등 뮤지컬 전문배우들이 함께 무대를 빛낸다. '꽃의 월츠'·'어메이징 그레이스'·'클라라의 월츠'·'크리스마스 카니발' 등 흥겨운 삽입곡들은 극의 분위기를 돋구며 극중 사이사이 관객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비밀스런 버라이어티쇼가 준비돼 있다. 문의 062-220-0542.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하늘 자연 닮은 우리의 색

박영희 천연염색 展 26일부터 나주 천연염색 문화관

하늘과 자연을 닮은 우리색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천연염색 작품전이 열린다.

천연염색 작업을 해오고 있는 박영희씨가 '5월의 풀빛, 그 부드러운 휴식'을 주제로 26일부터 다음달 17일 까지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박씨가 선보이는 작품은 창문과 거실을 장식하는 밤을 비롯해 의상, 생활 소품 등 90여점. 이를 작품은 부분의 합작품이다.

15년째 천연염색을 추구하고 있는 남편 김왕식(풀빛공방 대표)씨가 작품에 물을 들였고, 박씨는 한땀 한땀



'그리움'

작품에 수를 놓고 디자인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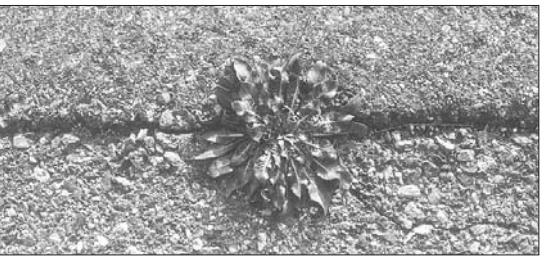
박씨는 이번 전시에서 천연염색 작품에 전통 규방문화를 대표하는 침선(針繡·바느질)을 더 함으로써 다

양한 작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의 061-335-009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 모임 '그리폐' 회원전 28일까지 남구문화예회관

사진 모임 '그리폐'



김경모 작 '풀이 있는 풍경'

김경모(경기 고양시)가 28일까지 광주 남구문화예회관에서 26회 회원전을 갖는다.

지역 유일의 흑백 사진 클럽인 그리폐 회원들은 각자 1년 동안의 작업을 결산하는 10여개 작품을 출품, 준개인전 성격의 전시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대학 시절부터 카메라를 잡아온 회원들은 '풀이 있는 풍경', '엄진' 등 자신이 정한 주제에 맞춰 다양한 삶의 모습과 고향의 정서, 자연 등을 따뜻한 흑백영상에 담아냈다.

참여 회원은 차일현 고문을 비롯 김유로, 이관기, 김현석, 백수성, 윤영창, 김진철, 남정현, 이관기, 서정옥, 김도영, 이정표, 배석환씨 등이다. 문의 062-670-2557.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향 신입단원모집 논란

탈락자 "의도적 면접으로 떨어뜨렸다" 재면접 주장

시향 지휘자 "수석으로서 역량 떨어졌다" 해명

최근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신입단원 오디션에 참가해 탈락된 지원자가 면접과정에 불만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문화예회관에 따르면 회관은 지난 4일 클라리넷 수석 등 5명의 상임단원 선발을 위해 실기전형을 실시했다. 모두 26명이 응시한 이번 오디션에서 바순과 하프는 실기 합격자를 내지 못했으며 클라리넷·제2바이올린·튜브 3개 부문은 최고득점자 각 1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면접을 치러 이중 제2바이올린과 튜브만 최종

합격자를 냈다.

클라리넷 지원자 11명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한 문모(32)씨는 최근 면접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며 재면접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기 1위에 한해 면접을 실시하는 광주시향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실기 학습자가 면접에서 탈락한 예가 거의 없어 일부에서는 '특정인 내정설'을 제기하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문씨는 "일반적으로 교향악단의 채용에서 면접은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 아니다"며 "수석연주자를 뽑는

자리에서 지휘자가 음악용어 사진을 들춰가며 잘 사용하지도 않는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은 나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와대 신문화민원을 제기한 문씨는 '열린문화진흥회' 등과 연계,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법적 대응도 준비중이다.

문씨를 면접 했던 금노상 지휘자는 "내정설은 논의 가치도 없고, '슬리스트'로 불리는 특정 파트의 수석연주자는 중요한 자리여서 심사숙고하게 면접을 치렀을 뿐"이라며 "광주시향의 운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응시자는 수석으로서 역량이 조금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21C 한국인들 '재테크' 책 탐독

베스트셀러 200종 분석···'해리포터' 등 외국소설 강세

2000년 이후 한국의 베스트셀러 도서를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한기호)는 격주간 출판 소식지 '기획회의' 200호를 기념해 특별기획 단행본 '21세기 한국인은 무슨 책을 읽었나'를 펴냈다. 책을 통해 2000년대 베스트셀러 200종, 밀리언셀러 60종 등을 분석했다.

베스트셀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경제경영서(40종·20%)였으며 그 뒤를 비소설(34종·17%), 외국 소설(33종·17%), 스트리리마니 등 MBC 프로그램 '느낌표' 선정도서 등 영상과 결합한 책 ▲'부자 아빠'·'가난한 아빠'(310만부), '마이멜로 이야기'(130만부) 등 자기계발서 ▲'영어공부 절대 하지마라'(200만부)와 같은 영어교재 등 5가지를 꼽았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소설이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와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로 각각 2천만부가 팔린 것으로 추정됐으며, 'Why' 시리즈(850만부), '신기한 스쿨버스'(700만부) 등 아동서 및 학습만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책은 21세기 밀리언셀러의 유형으로 ▲'해리포터', '다빈치 코드'(340만부) 등 블록버스터 소설

▲'만화로 보는...', '마법전자문' 등

스토리만화 ▲MBC 프로그램 '느낌표' 선정도서 등 영상과 결합한 책 ▲'부자 아빠'·'가난한 아빠'(310만부), '마이멜로 이야기'(130만부) 등 자기계발서 ▲'영어공부 절대 하지마라'(200만부)와 같은 영어교재 등 5가지를 꼽았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꼬까아동극단 뮤지컬 '알리바바와...'

26~27일 광주 서구문화센터

꼬까아동극단이 어린이 뮤지컬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을 무대에 올린다.

26~27일 낮12시, 오후2시·4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아이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아랍풍의 이국적인

의상과 무대장치, 특수효과 등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뮤지컬이다.

마음씨 착한 동생 알리바바는 숲속에서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을 발견한다. 이 소식을 들은 욕심많은 형 카심은 보물을 차지하려 도



둑들의 눈에 띠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문의 062-952-8784.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jeilcinema.co.kr*

제일 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
2관 밀양
3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4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5관 밀양
6관 밀양
7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8관 전설의 고향
9관 캐리비안의 해적3
10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 리버사이드홀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탑클래스 화밀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인터넷 예매 문의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227-1960
ARS 전화예매 문의

단 입장권 구매에 한함

데 가박스

구.런던약국서거리 ◆애매1544-060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 세상의 끝에서 (12세)
2관 밀양 (15세)
3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4관 네스트 (12세)/ 스파이더맨3 (12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 3: 세상의 끝에서 (12세)
6관 전설의 고향 (12세)
7관 신즈 더 맨 (12세)
8관 밀양 (15세)

9관 캐리비안의 해적3: 세상의 끝에서 (12세)

5월 1일부터 매거진을 매일 할인인 종료됩니다.
* 이프리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이 한정)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 228-2700

1관 밀양 (15세)
2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3관 눈물이 주룩주룩 (12세)
4관 스파이더맨 3 (12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6관 날아라 허瞪구 (전체) / 넘버23 (15세)

7관 신즈 더 맨 (12세)

8관 밀양 (15세)

* 주말·法定休日 15:00 ~